

01 교회소식

기쁨과 감사의 향으로~

올해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오디오북과 2023년 11월 은사 집회를 준비하는 작정 다니엘철야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1)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담대함을 가졌기에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03 기획특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심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잡념이나 피곤, 졸음이 틈탈 수 없고 중심을 바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04 간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고통받던 15년 된 관절염이 치료되고 오다리 수술 후유증과 이명을 치료받는 등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1005호 2023년 11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이재록 목사 오디오북 꾸준히 베스트셀러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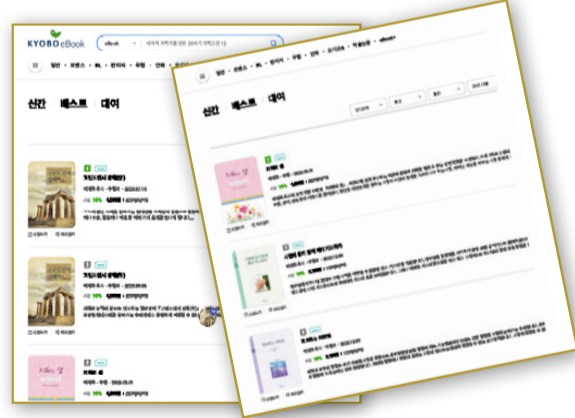
도서 출판 우림북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신앙 서적을 오디오북으로 발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2021년부터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영혼육』(상)(하), 『천국』(상)(하) 등 한국어 22종, 영어 2종, 중국어 2종, 러시아어 2종, 불어 1종, 히브리어 1종, 총 30종의 오디오북을 제작했으며, 현재 국내 교보문고와 네이버 오디오클립을 비롯해 미국 아마존닷컴의 오디오북 판매 플랫폼 오더블닷컴, 구글 플레이 북스, 애플 북스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유통 중이다.

특히 반응도 좋아 일간, 주간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월간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지혜』가 교보문고 종교 부문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8월에는 『고린도전서 강해』(상)가 교보문고 종교 부문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9월에는 교보문고 종교 부문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서 6위까지 차지하였다. 『고린도전서 강해』(상)는 8월에 이어 연속 1위를 기록했고, 『고린도전서 강해』(하)는 2위, 『지혜의 샘』은 3위, 『깨어라 이스라엘』은 4위, 『치료하는 여호와』는 5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6위에 올랐다.

10월에도 교보문고 종교 부문 월간 베스트셀러 1위에서 6위까지 차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11월 작정 다니엘철야 개최

‘작정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11월 6일(월)부터 26일(주일)까지 ‘은사 집회(11. 24)와 2023년 기도 제목 나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주제로 21일간 진행된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 각 성전에서 진행되며, GCN방송과 인터넷(www.gcntv.org) 생방송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참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개척 때부터 모이기를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며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 아름다운 기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기도를 받으시고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 걱정 근심을 잔뜩 지고 있거나  
 낙심 속에 있을 때는  
 기도할 힘이 오지 않을뿐더러  
 기도해도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원망 불평하는 등 마음에 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마음의 향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직은 부족할지라도 진리 말씀 안에 살고자 노력하며  
 기쁨과 감사의 향을 올릴 때 응답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 66:18)**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1)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브리서 11:33~38)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영광 돌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자나 저항할 수 없는 무력 앞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죽음 앞에 선다 해도 초연하지요. 사나운 맹수 앞에 있다 해도 평안하기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을 빼앗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담대히 행하지 못하고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부모가 위험에 처한 자녀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화재의 현장이나 거센 물결 속으로 뛰어 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 순간만큼은 죽음의 두려움을 생각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칼에 목 베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은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의인이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후시 자녀들이 범죄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염려하여 잔치 후에는 그들을 불러서 정결케 했지요. 또 시험 환난이 왔을 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욥 3:25)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하나님 사랑에 깨닫지 못했음을 말해 줍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욥을 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이지요. 만일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여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욥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연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더욱 아름다운 중심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연단하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말씀하신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만큼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요일 5:3, 3:21~22).

## 2. 세상이 감당치 못한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

### 1) 불의 응답을 끌어내린 엘리야

엘리야는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이 전국에 퍼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요.

그러자 아합은 가뭄을 예언한 엘리야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숨을 곳을 예비하셨고, 때가 되자 그에게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왕에게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대결을 제안하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인을 상대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끌어내립니다(왕상 18장).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

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임하니 혈혈단신으로 담대히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 2)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던 엘리사

적대국 아람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밝은 영감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치는 작전이 매번 실패하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 군사를 보내 그가 있는 성을 에워싸니 이를 본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 주시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두른 것을 보지요.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안으로 끌어 들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아람 군대를 후대해 돌려보내게 하지요. 그 뒤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에 다시는 들어 오지 못했습니다(왕하 6장).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사방으로 우겨 찌를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담대히 구할 수 있고,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에스더 3장 이하를 보면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몹시 화가 나 유대 민족 전체를 없애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자 모르드개는 유대인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 알려 민족을 구하라고 간청하지요.

비록 왕후라 해도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당당히 왕 앞에 나가 요구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지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 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및 관련 문의: 02-818-7236

**이재록 목사의 부흥성회 설교집**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다만 왕이 그를 위해 금홀을 내밀어야 살 수 있었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3일 금식을 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 하만의 계락을 폭로해 자기 민족을 구했을 뿐 아니라 더욱 왕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니 화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4) 죽음 앞에서도 타협지 않았던 다니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계락을 꾸미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타협하지도 않았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실하고 온전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 조금도 다치지 않고 지킴 받았습니다(단 6장).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를 굳게 지킨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것입니다.

5)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 불에 던져 넣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 앞에 끌려갔고, 왕은 이제라도 금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 주겠다고 기회를 주지만 조금도 타협지 않지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 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니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왕에게도 더욱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 믿음의 용사 기드온과 소년 다윗, 유다 왕 여호사밧

사사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로 인해 전세가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병력을 줄였음에도 담대히 나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니 승리할 수 있었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소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한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갔다가 때마침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행하니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중심부에 박혀 단번에 쓰러지므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역시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 남유대를 치러 오자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향로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와 함께하라" 말씀하시지요(대하 20:17). 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전쟁에 나가 싸울 준비를 하는 대신 거룩한 예배를 입은 성가대를 앞세워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함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 주셨지요(대하 20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두려움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으로 담대히 행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며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잡념이나 피곤, 졸음이 틈탈 수 없고 중심을 바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거나 밤에 집에서 기도할 때는 이웃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하지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부르짖는 기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했습니다(눅 22:44).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신 예수님 외에도 모세, 사무엘, 스테반 등 믿음의 선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지요(출 15:22~25 ; 민 12장 ; 삼상 7:7~10 ; 행 7:54~60).

엘리아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아이가 살아났고(왕상 17:17~24), 고기 배에 들어간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살아났습니다(욘 2장). 소경 바디매오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므로 보게 되는 축복을 받았지요(막 10:46~52).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한 중심으로 소리 높여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므로 응답은 물론 신령한 일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법칙에 따른 응답의 비결

사람은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므로 저주를 받고 땀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창 3:17~19).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시므로 모든 저주가 풀렸다 하지만 사람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되 땀 흘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아시지만, 천사들은 모르기에 입 밖으로 소리 내야 합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의 향을 천사장에게, 천사장은 그 기도의 향을 모아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기도 향로에 담

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 응답받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의 영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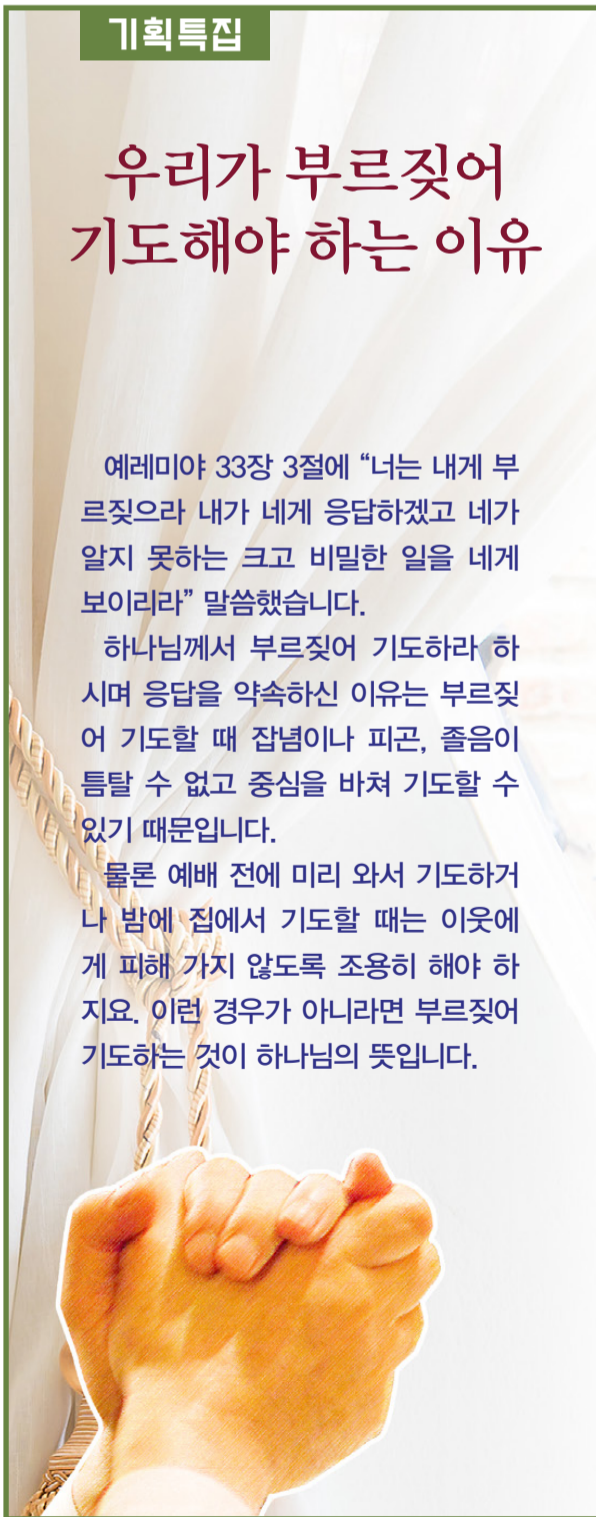
혹자는 마태복음 6장 6절을 예로 들며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굳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그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눅 6:12),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단 6:10),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으며(행 10:9), 사도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기도했지요(행 16:13~16). 이는 마음과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방'은 영적으로 '사람 마음'을 의미합니다. 골방과 같이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문을 닫으면 외부와 차단되듯이 기도할 때 모든 생각과 잡념, 세상 근심 걱정을 끊고 마음 중심을 모아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당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길에서 사람 앞에 칭찬 받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중심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 “오다리 수술 후유증과 이명을 치료받았습니다”

윤영옥 권사 (65세, 2대대 14교구)



2022년 7월, 길을 가던 중 넘어져 다리를 다친 후부터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한 차례 넘어지면서 다리 연골이 파열되고 만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연골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주입과 함께 오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선천적 오다리라서 점점 다리가 휘어지면서 체중이 한쪽으로 집중되면 회복이 어려워 오다리 수술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수술 후에도 통증으로 인해서 있거나 걷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일 년 뒤인 2023년 7월 27일(목), 다리에 박아놓은 쇠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하고 29일(토)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부위가 화끈거리며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열도 계속 나서 얼음 팩으로 진정시키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을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치료받고자 마음먹었기에 7월 31일(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 결과, 수술한 부위에 물이 차 있고 염증으로 이어

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였지요. 그 뒤 저는 수련회 참석을 위해 수련회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련회 ‘교육 및 은사 집회’에 참석했는데 제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들이 떠올라 통회자복하였고, 전체 환자 기도를 받을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웠지요. 그 뒤 단 앞으로 나아가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은 후 다리 통증은 물론 이명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확신한 저는 수련회를 마치고 8월 3일(목), 병원에 가서 검진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명과 오다리 수술 후유증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한이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어릴 때부터 고통받던 15년 된 관절염이 치료되었어요”

프리얀카 자매 (25세, 인도 비하르주)



저는 15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열 살 때 왼손가락에 처음 통증이 생기더니 그 통증은 왼쪽 팔꿈치와 무릎에 이어 점차 몸 전체로 퍼져갔지요.

이에 수도 델리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 보니 관절염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며 치료받아도 통증은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통해 ‘2023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첫날 ‘교육 및 은사 집회’ 때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은 뒤 통증이 크게 줄더니 이후

‘GCNTV HINDI’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면서 마침내 15년 동안 고통받던 관절염이 깨끗이 치료되었지요. 이뿐 아니라 5년 전부터 진물이 흐르던 귀의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유튜브 채널 ‘GCNTV HINDI’를 알게 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회장님의 설교는 생명이 되어 제 삶을 변화시켰고, 환자 기도를 통해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 해결을 받으니 강건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GCNTV HINDI’를 통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여방동1099-2 JJ빌딩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010-6425-8705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령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삼동 비파로 135-1 2층 ☎010-3927-7526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6320-598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547-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염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50-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장천동 팔마로11-5 3층 ☎061)745-1117, 010-66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청운로 129 향야빌딩 3층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망마로 102 ☎061)652-8311, 010-2325-1228
- 대구엘림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 11길 5 ☎010-9196-392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4-5816,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6772-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거룡2길 53-1 2층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3917-600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330-31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9636-797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